

(개정: 2018. 3. 5.)

제1조(목적)

결강에 대한 합리적인 보강을 통해 교육과정에 따른 연간 시수를 확보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)

- 가. 출장, 공가, 연수, 연가, 특별휴가(출산휴가 제외), 병가, 조퇴, 지참 등에 의한 결강
- 나. 기타 개인 사유로 인한 결강

제3조(방침)

- 가. 어떠한 경우라도 수업에 결손이 있으면 모두 결강으로 간주한다.
- 나. 결강에 따른 보강은 교체 수업과 대체 수업으로 구분한다.
- 다. 결강 시에는 당사자(결강 사유 발생 교사)가 가능한 사전에 수업 교체 및 대체 등의 계획을 수립해 결재권자(교감 전결)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- 라. 부득이한 상황으로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결강 사유의 발생 시, 수업 업무 담당교사가 정해진 규정을 바탕으로 합리적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- 마. 연간 수업시수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이 명백한 교사는 수업 업무 담당교사와 협의 후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- 바. 수업 업무 담당교사는 매 학기별로 시수 누계를 공지하여 부족 시수의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.
- 사. 수업 업무 담당교사는 연간 예산에 적정한 보강수당 예산을 편성한다.
- 아. 수업 대체의 경우 대체 교사에게 소정의 보강수당(시간당 10,000원)을 지급한다.

제4조(세부규정)

- 가. 교체 수업은 결강 시수에 포함되지 않으며, 사유 발생 1일 전까지 대상 교과와 교사와 협의한 후, 수업 업무 담당교사에게 통보한다.
- 나. 대체 수업의 경우 사유 발생 1일 전까지 대상 교과와 교사와 협의한 후, 수업 업무 담당교사에게 통보한다.
- 다. 수업 업무 담당교사는 통보 내용에 따라 수업을 교체 및 대체하고 결·보강 시간표를 1일 전에 해당 교사에게 예고하며, 보강 내용을 교무실 칠판에 기재한다.
- 라. 수업 교체의 경우 전 학년, 전 교과 간의 교체가 가능하며, 수업 대체의 경우 동일 교과(국어, 영어, 수학, 과학, 체육, 예술, 기술·가정, 제2외국어, 교양) 내에서만 가능하다.
- 마.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사전 승인을 얻지 못한 결강의 경우 아래의 순위에 따라 수업을 교체한다.

다.

- ① 동 교과와 교사를 우선 배정
- ② 동 학년의 유사 교과와 교사 배정
- ③ 보강을 희망하는 교사 배정
- ④ 결강 누계가 많은 교사 배정
- ⑤ 결강 당일 시수가 적은 교사 배정

바. 개인적 사유로 인한 3일 이내의 결강은 수업 교체 및 대체를 통해 보강하며, 예상된 4일 이상의 결강은 강사를 채용해 보강한다. 예상치 못한 급작스러운 사유로 4일 이상 결강할 경우, 강사 채용 전까지 수업 교체 및 대체를 통해 보강한다.

사. 공적 사유로 인한 2일 이내의 결강은 수업 교체 및 대체를 통해 보강한다. 3일 이상의 결강은 강사 채용을 통해 보강함을 원칙으로 한다. 강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, 강사 채용 전까지 수업 교체 및 대체를 통해 보강한다.

아. 창의적체험활동의 자율활동, 봉사활동, 동아리활동의 경우 부담임교사가 보강하며, 부담임교사가 보강이 어려울 경우, 다른 교사 중 희망에 의해 보강한다. 진로활동의 보강은 교과 보강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. 진로활동을 제외한 창의적체험활동 수업 대체의 보강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.

<부칙>

제1조 본 규정은 2018년 3월 5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.